

주요 내용

1.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최근 10년간 20~40대 개신교인 절반 가량 감소!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미국인의 종교 현황과 추세
 - 2) 한국인의 로또 구매 및 인식
 - 3) 청소년 음주·흡연과 마약 간 상관관계



최근 10년간 20~40대 개신교인 절반 가량 감소!

우리 연구소는 만 19세 이상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중고생)의 종교 분포와 현황, 가나안 성도 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전국 5,451명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이번 넘버즈를 통해 발표한다.

눈에 띄는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 인구(만 19세 이상)는 2012년 22.5%에서 2023년 16.6%로 10년 사이 6%p 감소했으며, 그중 20~40대 개신교인은 최근 10년 사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30대 젊은 층뿐 아니라 40대까지 감소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신교인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9%로 일반 국민의 32%보다 크게 높아 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우리 사회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종교화와 개신교인의 감소 추세 가운데 그나마 20~30대 개신교인 비율이 다른 종교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과 청소년 종교 인구 중 절반이 개신교인이라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3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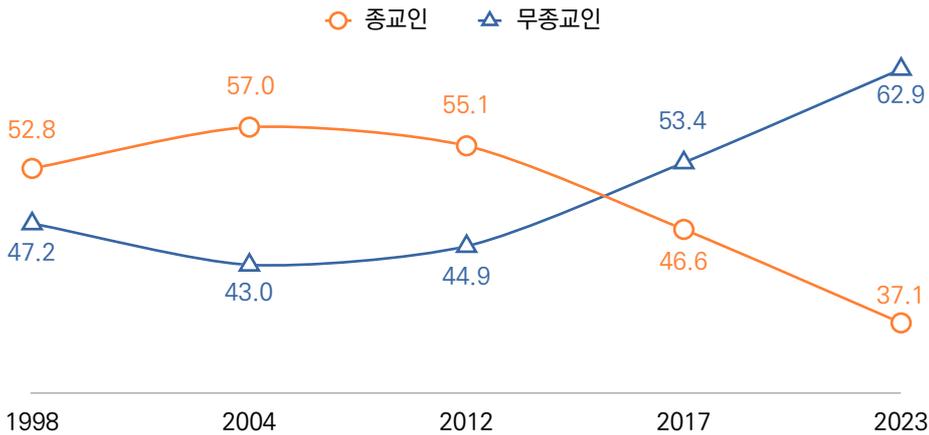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청소년(중고생) 및 성인 남녀
표본 규모	총 5,451명 - 만 19세 이상 4,751명 - 청소년(중고생) 700명
조사 방법	- 만 19세 이상 : 휴대전화 RDD* *Random Digit Dialing : 무작위로 생성된 무선 전화번호 조사 - 청소년(중고생) :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700명
표본 추출 방법	- 만 19세 이상 :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 - 청소년(중고생) : 지역/학년별 비례할당
표본 오차	- 만 19세 이상 : $\pm 1.4\%$ (95% 신뢰수준) - 청소년(중고생) : $\pm 3.7\%$ (95% 신뢰수준) (무작위 추출 가정시)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 만 19세 이상 : 2023년 10월 18일 ~ 11월 1일(15일간) - 청소년(중고생)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3일(7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종교 인구 분포] 한국사회,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

- ▶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종교 인구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2023년 10월 조사에서 우리나라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은 62.9%로 가장 저점을 찍었던 2004년 43.0% 대비 20%p가량 큰 격차를 보이며 급증했다. 1998년 이래 앞서던 종교인 비율은 2017년 무종교인에 역전됐고, 이후 무종교인이 점차 증가하며 종교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종교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 이상, %)



*자료 출처 : 1998~2017년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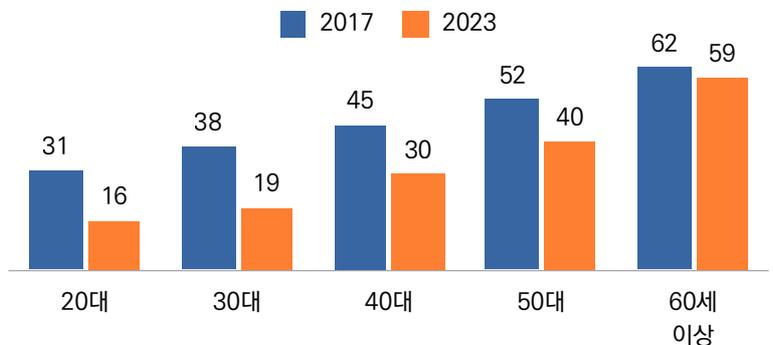
◎ 20·30대 종교인, 최근 6년 사이 절반 감소

- ▶ 종교를 가진 '종교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인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 ▶ 2017년과 2023년 조사를 통해 지난 6년 사이의 종교인 특성을 비교해 보니 2023년은 남성 32%, 여성 42%로 6년 전 대비 남녀 종교인 모두 감소했고, 특히 여성의 감소 폭이 더 컸다. 또 20·30대의 종교인 비율은 2023년 각각 16%, 19%로 2017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해 20~30대의 종교인은 해당 세대에서 5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별 종교인 분포 변화 (만 19세 이상, %)



[그림] 연령별 종교인 분포 변화 (만 19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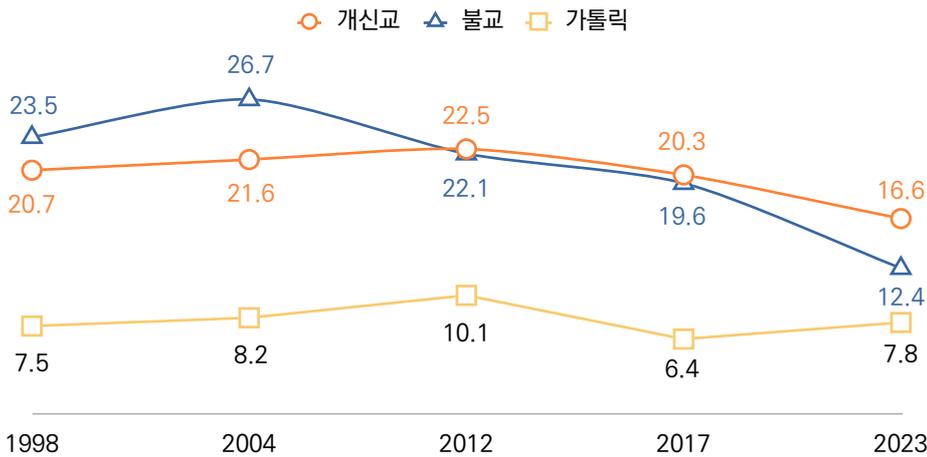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0 자리로 표시

02

[종교별 인구] 개신교 인구 비율, 최근 10년 사이 6%p 하락!

- ▶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개신교, 불교, 가톨릭 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개신교, 불교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2023년 불교 인구의 하락 폭이 2012년 대비 -10%p로 매우 컸고, 개신교는 2012년 정점(22.5%)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 최근 10년 새(2012~2023) 6%p 감소했다.
- ▶ 20대와 30대의 개신교인 비율은 각각 9%와 11%로 다른 종교 대비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종교 인구 비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20~30대의 종교인 중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것이 희망적이다.

[그림]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 이상, %)



*자료 출처 : 1998~2017년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표] 종교별/인구 특성별 비율 (2023, 만 19세 이상, %)

구분	성별		연령별					2023 전체	2012* 전체	증감 (2023-2012)
	남성	여성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개신교	15	18	9	11	14	17	24	17	23	-6%p
불교	11	14	4	4	8	14	21	12	22	-10%p
가톨릭	6	9	2	4	7	9	12	8	10	-2%p
기타	0.3	0.3	0.4	0.0	0.3	0.2	0.4	0.3	0.4	-0.1%p
무종교	68	58	85	81	71	60	41	63	45	18%p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출처 : 2012년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03

[개신교 인구]

20~40대 개신교인, 최근 10년간 절반 가량 감소!

- ▶ 우리나라 개신교인 비율은 앞서 언급했듯이 2012년 22.5%에서 2023년 16.6%까지 감소했다. 연령/지역 등 세부 특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대부터 40대까지 개신교인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절반 가량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30대 젊은 층뿐 아니라 40대까지 감소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표] 인구 특성별 개신교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 이상, %)

구 분		1998년*	2012년*	2023년	증감 (2023-2012)
전 체		20.7	22.5	16.6	-5.9%p
성별	남성	17	21	15	-6%p
	여성	24	24	18	-6%p
연령	19~29세	20	19	9	-10%p
	30~39세	19	21	11	-10%p
	40~49세	24	26	14	-12%p
	50~59세	26	23	17	-6%p
	60대 이상	19	24	24	0%p
지역	서울	26	28	17	-11%p
	인천/경기	28	27	18	-9%p
	대전/세종/충청	19	22	18	-4%p
	광주/전라	24	25	22	-3%p
	대구/경북	10	14	14	0%p
	부산/울산/경남	11	14	9	-5%p
	강원/제주	20	14	19	5%p

*자료 출처 : 한목련,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 교회의 고령화 속도, 우리 사회보다 빨라!

- ▶ 일반 국민과 교회 출석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대의 경우 일반 국민 대비 개신교인의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이었고, 반면 60대 이상 비중은 교회 출석자가 52%로 일반 국민 32%보다 20%p 높게 나타났다. 교회가 우리 사회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고, 고령화 속도도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집단별 연령 비중 비교 (202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통계

**실제 연령별 총인구를 바탕으로 개신교인 비율과 가나안 성도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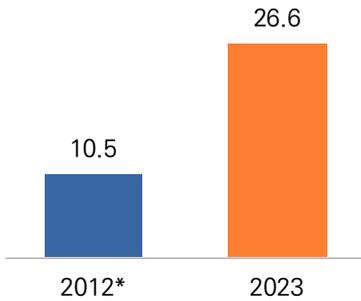
04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비율, 지난 10년 새 2.5배 증가!

-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2012)와 이번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 비율은 2012년 10.5%에서 2023년 26.6%로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4명 중 1명 이상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천, 소위 가나안 성도인 셈이다.

[그림] 가나안 성도** 비율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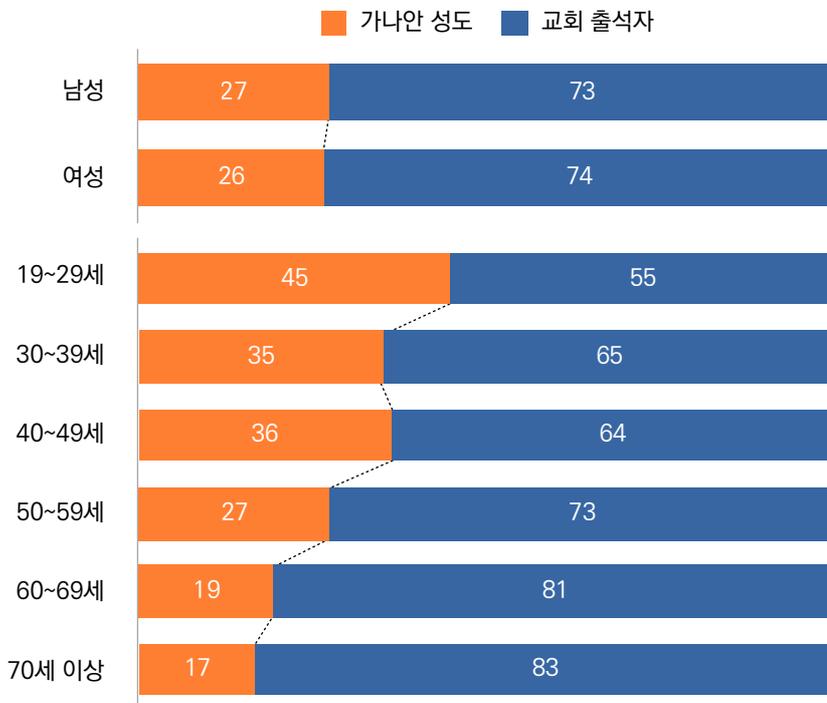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가나안 성도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자 또는 6개월에 한 번 이하 교회 출석자로 정의함

◎ 30·40 개신교인 3명 중 1명 이상은 가나안 성도!

- ▶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가 45%로 가장 높고, 30, 40대도 각각 35%, 36%로 3명 중 1명 이상이 가나안 성도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나안 성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층이 될수록 다시 교회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그림] 성/연령별 가나안 성도 비율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05

[청소년 종교 실태]

청소년 종교인과 개신교인 비율, 성인보다 더 낮아!

- ▶ 그렇다면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전체 청소년 중 종교가 있는 경우는 2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2.4%는 무종교인이라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무종교인 비율이 성인보다 높은 점이 주목된다.
- ▶ 개신교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3.6%로 불교(7.6%), 가톨릭(5.7%) 비율을 합한 수치와 비슷했다.

[표] 종교 현황 비교 (성인 vs 청소년, %)

	성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중고생)
개신교	16.6	13.6
불교	12.4	7.6
가톨릭	7.8	5.7
기타	0.3	0.7
무종교인	62.9	72.4
계	100.0	100.0

◎ 개신교 청소년 인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크게 떨어져!

- ▶ 청소년의 종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 종교에서 남학생 비율이 높았는데, 개신교의 경우 남학생 17%로 여학생(10%)보다 높았다.
- ▶ 특히 중학생 비율은 17%인데, 고등학생에서 10%까지 떨어져, 다른 종교에 비해 학령별 종교 인구 비율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표] 청소년 종교별/인구 특성별 비율 (만 14~18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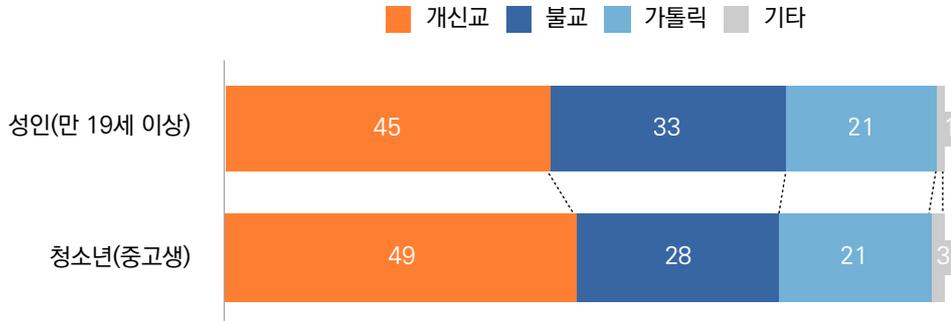
	전체	성별		학령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개신교	14	17	10	17	10
불교	8	9	6	8	7
가톨릭	6	7	5	5	7
기타	0.7	0.8	0.6	0.8	0.6
무종교	72	66	79	69	76
계	100	100	100	100	100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 청소년 종교 인구 중 절반은 개신교인!

- ▶ 무종교인을 제외한 종교를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종교 점유율을 살펴보면 청소년 개신교인의 비중은 49%로 성인의 45%보다 높았다.

[그림] 종교 점유율 (성인 vs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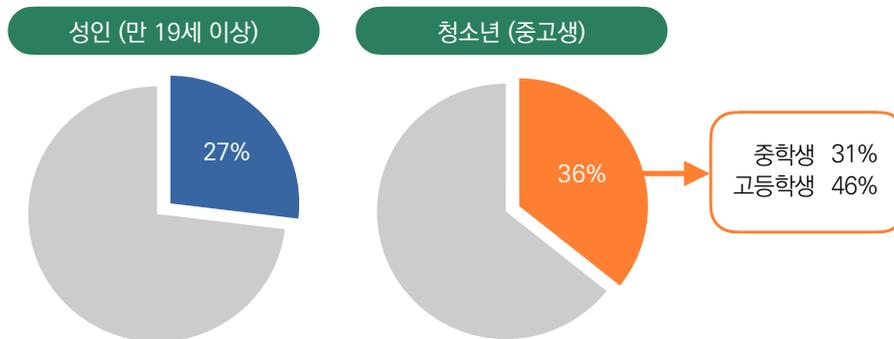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 하지만 청소년의 가나안 성도 비율, 성인보다 더 높아!

- ▶ 개신교인 성인의 가나안 성도 비율은 27%였는데, 청소년의 경우 36%가 가나안 성도로 나타나 성인보다 더 높았다. 고등학생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무려 46%로 중학생(31%)의 1.5배에 달했다. 크리스천 청소년 3명 중 1명이, 크리스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이들이 성인으로 편입되면서 성인 가나안 성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가나안 성도 비율 (성인 vs 청소년)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07

[미래 한국 교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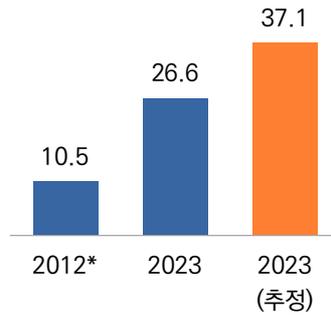
이대로 가면 10년 후 개신교인 전체 인구의 12%대 수준!

- ▶ 한국 교회 출석자 수는 향후 어떻게 변화할까?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개신교인 비율과 가나안 성도 비율을 다른 변수는 통제하고 단순히 지난 11년간의 추세 기울기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뒤를 예상하면 개신교인의 비율은 12.6%까지 떨어지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37.1%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림] 개신교인 인구 비율 추이(추정)
(만 19세 이상, %)



[그림] 가나안 성도 비율 추이(추정)
(만 19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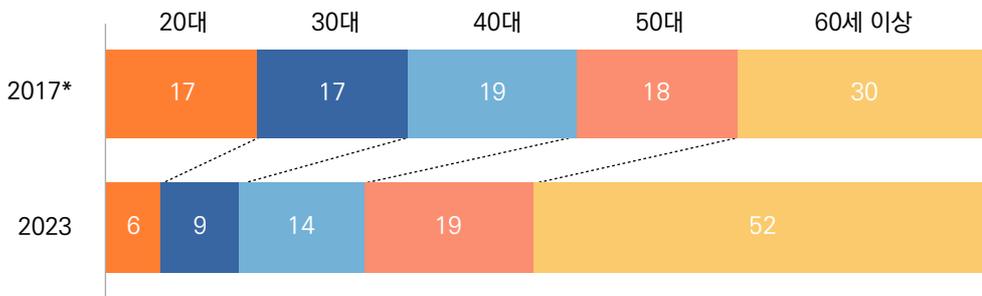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목련,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 20대 교회 출석자 비율, 최근 6년 사이 3배 가까이 감소!

- ▶ 최근 6년간의 교회 출석자**의 연령대 비중을 살펴보니, 2017년 각각 17%인 20·30대의 비율은 2023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60대 이상의 비율은 30%에서 52%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교회는 개신교인과 출석 교인의 감소 속에 현실적인 노인 목회 준비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림] 교회 출석자의 연령대 비중 (%)



*자료 출처 : 한목련,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실제 연령별 총인구를 바탕으로 개신교인 비율과 가나안 성도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

그동안 한국인의 종교실태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갤럽, 통계청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파악해 왔는데, 이번에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종교 분포를 파악하고자 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전국의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청소년 5,451명이라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성인 대상 조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휴대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무작위 원칙을 지키기 위해 RDD(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로 생성된 전화번호로 직접 면접원이 전화하여 질문을 읽고 답변을 받는 방식) 기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조사는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종교 분포 파악과 가나안 성도 비율까지 조사를 직접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사실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탈종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를 가진 한국인의 비율은 2004년 조사에서 57%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37%까지 떨어졌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심한데, 20대의 종교인 비중은 16%, 30대의 종교인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탈종교화는 사회, 경제,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와 교육 수준이 발달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90%의 인구가 기독교인이었지만, 2021년에 63%까지 감소했으며 2050년에는 무종교인이 기독교인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될 정도이다.¹⁾ 현대 문명이 종교를 대체하거나 기존 종교가 더 이상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종교가 없는 삶은 세속에 집중하게 되고 비혼과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탈종교화 속 개신교 인구의 하락도 가중되고 있다. 개신교인 비율은 2012년 22.5%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에 16.6%까지 떨어졌다. 20·30대 개신교인의 비율은 각각 9%와 11%로 10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해 동일 연령대의 일반 국민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 개신교인이 감소하는 사이 가나안 성

도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가나안 성도 비율은 26.6%로 2012년 10.5%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10년 전 개신교인 10명 중 1명 정도가 교회 출석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4명 중 1명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은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인 중 개신교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의 49%, 20·30세대의 58%가 개신교인이라는 점은 한국 종교의 미래에서 '다음세대' 개신교인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집계된 '넘버즈폴' 71차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가 꿈은 '2024 한국교회 키워드'로 '다음세대(25%)'가 가장 많았는데, 목회자 또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교회는 탈종교화와 개신교인의 감소, 가나안 성도 증가,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 현상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적 문제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세대 사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신앙이 유지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신교 청소년의 교회 출석률은 64%인데, 이들이 20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출석률은 55%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함이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교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Pew Research Center 'Modeling the Future of Religion in America',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2/09/13/modeling-the-future-of-religion-in-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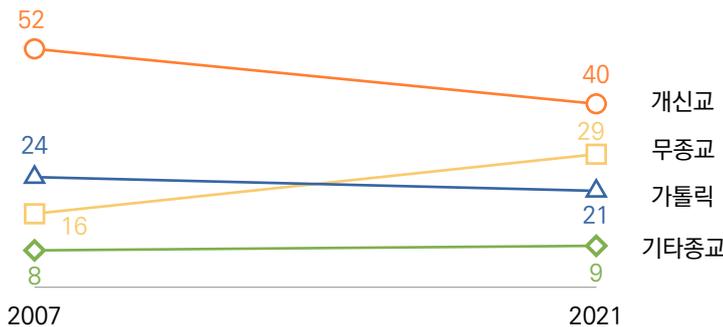
- 1.[미국인의 종교 현황과 추세]
- 2.[한국인의 로또 구매 및 인식]
- 3.[청소년 음주·흡연과 마약 간 상관관계]



미국인의 종교, 개신교 하락하고 무종교인 증가세!

- ▶ 한국의 경우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종교 현황은 어떠할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2022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우리와 비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구에서 여전히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개신교인은 2007년 미국인의 절반 수준인 52%에서 2021년 40%로 12%p 감소했다. 반면 무종교인은 2007년 16%에서 2021년 29%로 13%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미국인의 종교 분포 (미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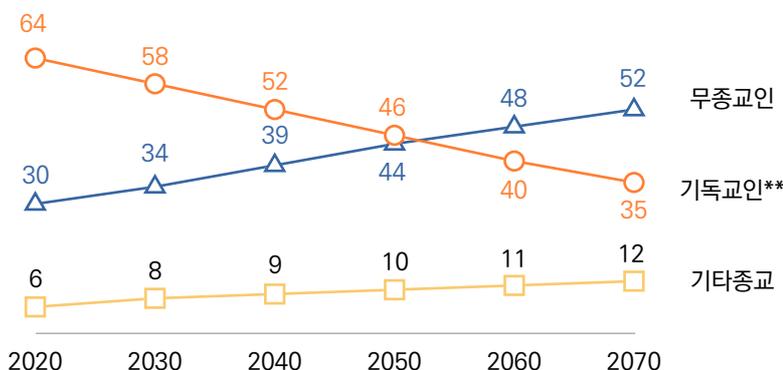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About Three-in-Ten U.S. Adults Are Now Religiously Unaffiliated', 2021.12.14. (2007~2021년 각각 조사 방법과 응답자 수 상이, 하단 사이트 참조/2021년 조사: 미국 18세 이상 성인 3,937명, 주소 기반 샘플링 사용, 온라인과 우편 조사, 2021.05.29.~08.25)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1/12/14/about-three-in-ten-u-s-adults-are-now-religiously-unaffiliated/>)

◎ 미국 무종교인, 2050년대 이후 기독교인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 ▶ 퓨리서치는 현 추세를 반영한 4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기독교인과 무종교인 변화를 예측했는데, 그중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예측 결과, 2050년대 이후 무종교인이 기독교인을 추월하며 2070년에는 미국인 2명 중 1명은(52%) 종교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도 개신교 지형이 약화되고,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미국인 종교 분포 시나리오 (미국인 전체)



*자료 출처 :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About Three-in-Ten U.S. Adults Are Now Religiously Unaffiliated', 2021.12.14. (2007~2021년 각각 조사 방법과 응답자 수 상이, 하단 사이트 참조/2021년 조사: 미국 18세 이상 성인 3,937명, 주소 기반 샘플링 사용, 온라인과 우편 조사, 2021.05.29.~08.25)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1/12/14/about-three-in-ten-u-s-adults-are-now-religiously-unaffili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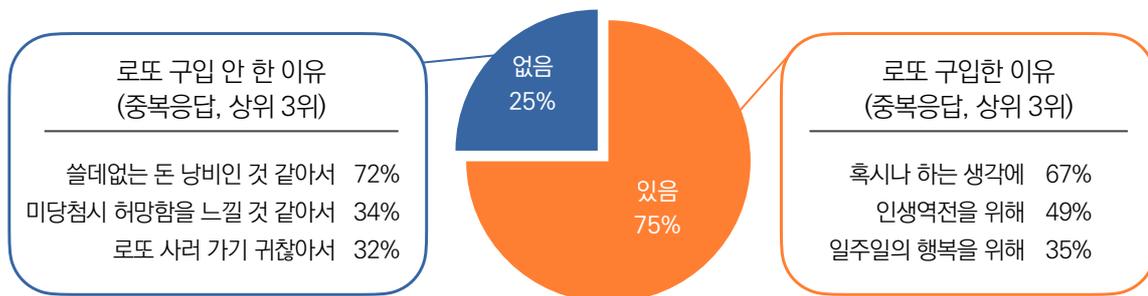
**개신교인, 가톨릭, 몰몬교, 정교회 등을 합한 비율



우리 국민 75%, 작년 한 해 로또 구입 경험 있어!

- ▶ ‘로또 6/45’(이하 ‘로또’로 표기)는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복권 상품명으로, 복권의 대명사처럼 불리는데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에서 최근 발표한 로또 구매 경험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로또 관련 인식을 알아본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로또 복권을 구매한 우리 국민은 75%로 4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 ▶ 로또의 구입 이유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67%, ‘인생역전을 위해’ 49%가 각각 1, 2위로 나타나 막연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쓸데없는 돈 낭비인 것 같아서’(72%)를 가장 높게 꼽았다.

[그림] 로또 구입 경험 (일반 국민, 2023 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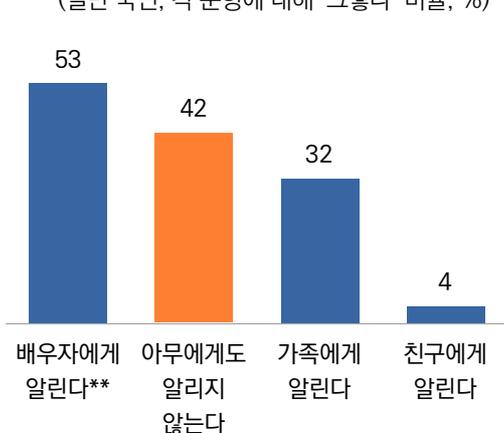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로또 6/45 구매 경험 관련 조사’, 2023.12.13. (전국 만 19~59세 남녀, 온라인 조사, 2023.12.08.~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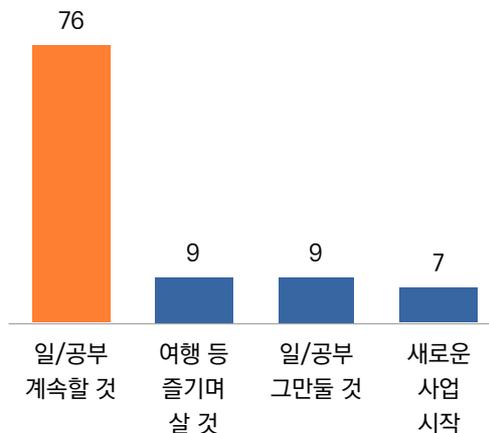
◎ 우리 국민 42%, ‘로또 1등 당첨되면 아무에게도 안 알릴 것!’

- ▶ 그렇다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주변에 알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배우자에게 알린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도 42%나 됐다.
- ▶ 로또 1등 당첨 후 계획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3명(76%)은 ‘일/공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해 자신의 사회생활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그림]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주변 알림 여부 (일반 국민,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비율, %)



[그림] 로또 1등 당첨 후 계획 (일반 국민,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로또 6/45 구매 경험 관련 조사’, 2023.12.13. (전국 만 19~59세 남녀, 온라인 조사, 2023.12.08.~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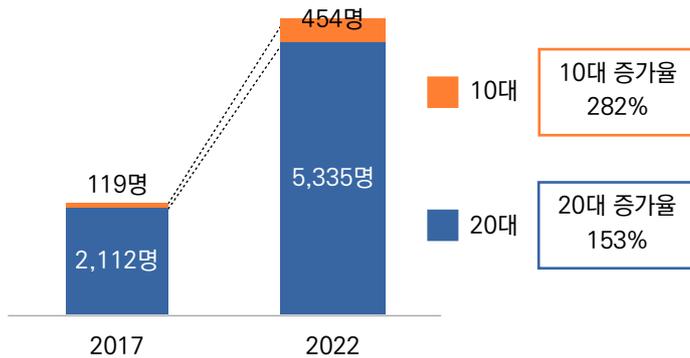
**기혼자 기준



10대 마약사범, 5년 사이 282% 증가

- ▶ 부경대학교의 연구팀이 청소년의 건강행태** 결과를 활용해 흡연/음주 경험과 마약 사용의 상관 관계를 관문 이론(gateway theory) 기반으로 파악했는데, '관문 이론'이란 법으로 허용하는 약물 사용이 결국 더 강력한 약물 사용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 ▶ 먼저 우리나라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54명으로 282% 증가했으며, 20대는 2,112명에서 5,335명으로 153% 증가했다.

[그림] 10·20대 마약류 사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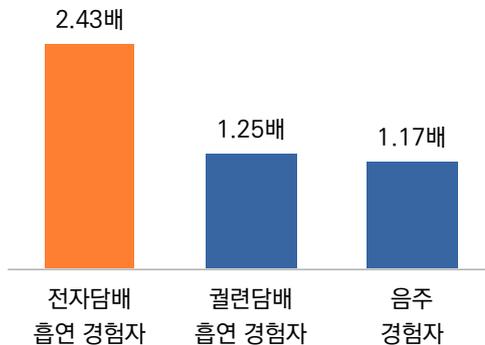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회과학연구(제31집 2호), 청소년의 음주, 흡연, 마약 사용 간 관계: 관문 이론을 활용하여, 부경대학교 허원빈/오영삼 교수 연구팀, 2023.12.11.

**질병관리청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

◎ 담배·술 경험 청소년, 마약 손달 가능성 최대 2.4배 높아!

- ▶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은 마약류 사용 경험과 어떤 상관성을 보일까? 이번 연구 자료에 따르면 흡연/음주 미 경험자 대비 평생 한 번이라도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3배, 평생 궤련담배 흡연 경험 청소년은 1.25배, 음주 경험 청소년은 1.17배 더 마약류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흡연과 음주 경험에 따른 마약류 사용 가능성 배수 (청소년, 흡연·음주 미 경험자 대비)



*자료 출처 : 사회과학연구(제31집 2호), 청소년의 음주, 흡연, 마약 사용 간 관계: 관문 이론을 활용하여, 부경대학교 허원빈/오영삼 교수 연구팀, 2023.12.1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70호 \(2024년 1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총선 결과 기대, 국회의원 선택 기준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13호 \(2024년 1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 방향성 평가, 22대 총선 인식,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인식 등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민의힘 35%, 민주당 36%](#)

연합뉴스_2024.1.10.

[정치에 대한 여론선도총 의견](#)

연합뉴스_2024.1.13.

[막말이 무능력보다 더 싫었다... ‘금배지 달면 안될 사람’ 물었더니](#)

조선일보_2024.1.13.

◎ 한국의 50대

[“나만 돈 없나?” 50대 가장의 평균 저축액 얼마길래](#)

조선일보_2024.1.10.

[한국 고독사 보고서...“50대 남 최다...알코올·약물대책 필요”](#)

연합뉴스_2024.1.15.

◎ 사회 일반

[‘늙어가는 한국’...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아졌다](#)

연합뉴스_2024.1.10.

[‘나쁜 부모’ 제재에도 4명 중 1명만 양육비 지급...2억7400만 원 떼먹기도](#)

문화일보_2024.1.15.

["화장로 짝 차 4일장"...2년뒤 부산, 장례 끝나도 묻을 곳 없다](#)

중앙일보_2024.1.13.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통학거리 860m...1km 초과 학교도 28%](#)

연합뉴스_2024.1.11.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에게 베풀어야 ‘악당 유전자’ 활동 줄어든다](#)

동아일보_2024.1.6.

[국민 10명 중 9명 “개고기 안 먹어”... 동물단체, ‘개식용 종식법’ 통과 촉구](#)

조선일보_2024.1.8.

[가족 있어도... “집에 홀로 있을때 행복”](#)

조선일보_2024.1.1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청년 / 청소년

[대학 입학 4명 중 1명 N수생](#)

매일경제_2024.1.14.

["학교는 학생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

연합뉴스_2024.1.9.

◎ 경제 / 기업

["올해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해도 중소기업 3만5천명 더 필요"](#)

연합뉴스_2024.1.8.

["공장 직원 절반이 60세 이상"... 제조업 평균 43.5세 또 최고치](#)

동아일보_2024.1.15.

[미혼 남성 고용률, 결혼한 남성보다 16%p 낮아](#)

중앙일보_2024.1.9.

["이번 신입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동료가 온다](#)

매일경제_2024.1.8.

[여성 노동자의 우울증에 영향 미치는 '가정과 직장 간 갈등'](#)

경향신문_2024.1.15.

◎ 세계 / 국제

[전쟁·기후위기·경제난에 '정신건강' 글로벌 의제 급부상](#)

한겨레_2024.1.9.

[\[출산율, 다시 '1.0대'로, \(동아일보\)\]](#)

[출산율 0.6명→1.97명... 대기업 9년만의 '기적' _2024.1.16.](#)

[日, 3자녀 이상 대학 공짜... 아동수당도 늘려 _2024.1.16.](#)

["업무효율 높히려 다양한 시도 했을 뿐... 회사도 뒤늦게 출산율 증가 보고 놀라" _2024.1.16.](#)

◎ 건강

[한국인 절반은 WHO 권고 신체활동 안한다...실천율 6년새 10%p ↓](#)

연합뉴스_2024.1.7.

["우울한 감정은 비만의 촉매제"](#)

동아일보_2024.1.1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 종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2023년 한국교회](#)

[가스펠투데이_2024.1.2.](#)

◎ **기획기사 : 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2>, (서울신문)**

[시도별 지원금 격차 최대 4배... 보호비용도 떠맡은 위탁부모](#) _2024.1.3.

[지원센터 직원·사회복지학 교수 등 114명 설문조사 참여](#) _2024.1.7.

[美·英·캐나다 양육보조금 한국의 4~5배... 유럽은 휴가비, 日은 생활비 추가 지원](#) _2024.1.8.

[친엄마 품에 돌아간 은혜... “너의 부모라서 행복했어”](#) _2024.1.10.

[“든든한 버팀목 된 위탁가족... 우리도 세상에 도움 되고 싶어”](#) _2024.1.10.

[수백번 고민 날린 딸의 한마디 “동생 생겨도 괜찮아”](#) _2024.1.10.

[위탁부모의 조건... 일정 소득·자녀 셋 이하·폭력 전과 없어야](#) _2024.1.10.

◎ **기획기사 : 신노동의 시대, (국민일보)**

[“승진은 무슨, 정년까지 버티자”... 만년부장 전성시대](#) _2024.1.1.

[“성공보다 위라밸”... 대기업 생산직 2040세대 구직 줄었다](#) _2024.1.1.

[“당당한 블루칼라”... 일터 풍경이 달라진다](#) _2024.1.1.

[“평생직장 옛말, 원하는 만큼 일한다”... 뜨는 ‘긱워커’](#) _2024.1.1.

[감독자·편집자로... AI·로봇시대 일자리 패러다임 바뀐다](#) _2024.1.2.

[원하는 만큼만 일한다](#) _2024.1.2.

[잔뜩 오긴 왔는데... 산업현장은 외노자와 ‘갈등 쓰나미’](#) _2024.1.2.

[갈수록 영역 넓히는 플랫폼 일자리... 법·제도는 뒤쳐져](#) _2024.1.4.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촌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고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안성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양신), 순복음대구교회(담임목사 이건호)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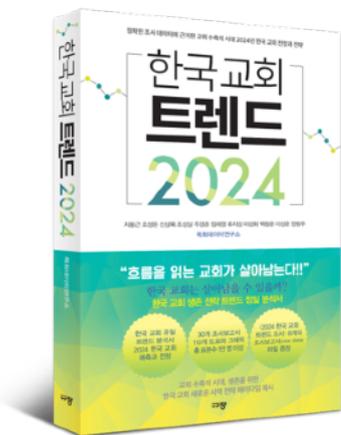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